



기술가치평가와 연계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사업화 정책 포럼 개최

지난 3월 23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기술가치평가와 연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산자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와 '수요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으며, 박봉수 기술신용보증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술신보의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기술금융의 인프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순 협회 공동회장은 '초기단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은 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행사였다.

● 주최 : 산업자원부 ● 주관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가치 ● 후원 :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서울경제신문 ● 주제발표 : 박기영(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박봉수(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장흥순(협회 공동회장)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박 | 기 | 영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문제는 대부분 금융시장의 돈이 투입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전문가들을 활용해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술가치평가가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느냐에 따라 기술금융의 활성화 방안이 결정될 것이며, 기술가치평가가 제대로 된다면 그 기술의 생산에 따른 적당한 인센티브 지급과 보상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해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를 측정·판단하는 안목과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을 기술성평가 전문가로 활용하여 아웃소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평가자 간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편차를 줄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기술가치평가를 벤처캐피탈이나 은행, 금융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각 출연연의 연구성과확산센터는 1차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술거래소가 연계를 맺어 기술성 자

료를 재검하는 인프라로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기술평가기관들의 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할 것이다.

둘째, 기술가치 평가의 수요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상업화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 R&D에서 정부 R&D과제 최종평가 시 기술가치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실용화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 기술가치평가 또한 함께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공공 연구개발 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청이 출자하는 벤처펀드의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기술가치평가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한 보증지원 확대 방안

박 | 봉 | 수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금융의 인프라로 기술가치평가를 도입하여 기술평가시장의 Market-Leader로서 위상을 확보해 나갔다. 기보는 1997년 설립된 기술평가센터를 통해 기술평가보증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작년 7월에는 창업보증, 기술보증, 벤처보증을 전담하는 기술금융기관으로 조직을 개편해 기술평가단을 발족하고 10개의 기술평가센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이로써 균형화된 평가모형에 의해서 대량평가를 해왔던 기업기술평가센터에서 벗어나 비정형화되고 전문화된 수준 높은 가치평가를 하게 되었다.

또한 기보는 185명의 자체 기술평가 전담인력과 893명의 외부 기술경영 자문위원을 운영하면서 2007년까지 인력을 확충해서 새롭게 창출되는 기술평가 수요에 유입하려고 한다. 외국의 선진평가기관에 1년 단위로 전문 인력을 파견해 OJT과정에서 선진평가 기술을 습득하여 평가 역량을 확충할 계획은 물론, 기법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전 보증 상품을 도입하고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R&D과제에 대해 '개발-응용개발-사업화'의 단계별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혁신형 벤처기업 지원에 3년간 10조원의 보증지원을 할 것이며, 벤처투자자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Leading 벤처로 육성할 것이다. 또한 시장신뢰 확보를 위한 벤처정보시스템(VENIS)을 구축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부족을 해결하고 벤처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가치평가, 기술평가보증, 기술이전보증으로 기술금융 허브로서 기술금융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수요기업의 모든 필요에 부응하는 원스톱 지원 체제를 갖추고 기술혁신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한 벤처투자 방안

장 | 흥 | 순 | 지난 1999년~2000년도에 벤처기업 붐업을 통해 실험실벤처와 비즈니스인큐베이터에 약 5천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창업됐지만 이 기업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이는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TRM과 기술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평가함으로써 M&A를 활성화시키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벤처기업이 실패하는 것은 자본부족보다 기술력이 좋은 기업을 차별화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5천개 기술사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각 분야별, 기술별, 산업별로 컨설팅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대안으로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M&A기술 펀드를 제안한다. 기술은 전략적 제휴나 아웃소싱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보다 사업화를 촉진하는 정책들이다. 또한 평가시스템의 축은 각 산업별, 기술별로 다양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시스템에 대한 공급은 채널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안으로 초기 기업 및 기술 사업화에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며, 평가주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투자전문펀드와 같이 평가와 결과 활용 주체가 통합될 수 있는 기술금융이 도입되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벤처캐피탈,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기술가치 평가에 필요한 시장·기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자금융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기술가치평가와 투자는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박기명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장흥순 협회 공동회장